

第 38 回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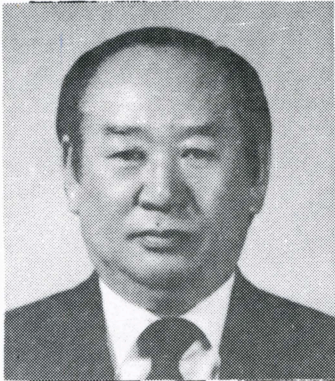
(평안도다리굿)

日時 : 1997. 10.15~17

場所 : 전라북도 익산시



평안북도 민속보존회



人 事

全國 각지방의 固有한 民俗이 總出演하여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게 되는 第38回 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가 아름다운 농업도시 전라북도 익산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平安北道 民俗保存會에서는 이번 대회에 「平安道 다리굿」을 출연, 祖上의 슬기와 찬란한 文化를 펼쳐보일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오랜 歷史를 이어오는 동안 조상들로부터 많은 文化遺産을 이어받아 계승 발전시켜 왔으며 또한 後孫들에게 잘 보존하여 물려주어야 할 責務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국이 分斷되어 40여년의 한을 간직한 채 우리의 鄉土 文化예술은 北韓共産集團의 偶像化 政策으로 말미암아 文化와 藝術이 이질화 되고 흔적없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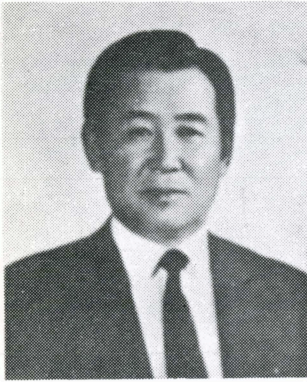
우리는 이러한 역사와 문화의 斷切을 克服하기 위하여 우리 고유의 文化藝術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正確하게 재현하여 새로운 文化暢達에 기여하는 동시에 後孫들에게 값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전도민이 깊이 認識하여 매년 열리는 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 참가를 계기로 故鄉의 민속문화에 聲援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때 우리 平北道民이 가꾸어온 문화예술의 優秀성과 자랑스러움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무한한 긍지와 自負心을 갖게 될 것입니다.

금번 「平安道 다리굿」 출연을 위하여 아낌없는 支援과 격려를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우리의 傳統民俗藝術을 발굴하고 후손들에게 祖上의 빛난 얼과 자랑스러운 예술성을 심어주는데 最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本大會 參加를 통하여 우리 民族固有의 문화예술이 찬란하게 꽃피고 자손만대에 길이 빛낼수 있는 크나큰 結實을 거둘것을 祈願하면서 道民 여러분의 聲援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1997年 10月 日

民俗保存會長 崔 滿 憶



激 勵 辭

民俗 文化 藝術의 大祭典인 제36回 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가 전라북도 익산에서 개최하게 된것을 慶祝하면서 平安北道를 대표하여 「平安道 다리굿」이 出演하여 祖上의 일과 우리 固有의 민속예술을 재현하게 된것을 2백만 도민과 함께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激勵와 聲援을 보내는 바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독특한 歷史的인 환경속에서 각 지방마다 固有의 傳統文化를 끊임없이 계승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分斷 40餘年 民族文化의 단절속에서 우리의 郷土文化藝術은 북한의 조작과 왜곡으로 변질되어 왔으나 최근 두고온 故郷의 文化에 대한 뿌리를 찾고 이를 계승 發展시키려는 努力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전도민의 關心과 성원이 높아지고 있음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연구하고 振興시키려는 文化藝術人 여러분의 피나는 努力의 結果이기에 더욱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200萬 道民이 전통 문화예술을 올바르게 理解하고 正確하게 재현하면서 原形保存을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지시고 잊혀져가는 전통문화예술을 繼承 發展시킴으로써 우리들의 2·3世는 물론 統一後의 우리 故郷에 전통문화가 原形대로 승계될수 있도록 하는것이 우리들의 責務라는 것을 다시한번 強調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년 열리는 民俗 藝術 競演大會에 우리 道의 代表가 참가하는 일은 더욱 값진 뜻을 가지는 것이며 文化藝術을 숭상하는 우리 道民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大會에 出演하는 「平安道 다리굿」의 재현을 위해 物心兩面으로 노력해 주신 民俗保存會 崔滿攄 會長님을 비롯하여 關係者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그동안 勞苦에 대하여 致賀를 드리는 바입니다.

感謝합니다.

1997年 10月 日

平安北道知事 장 정 열

激 勵 辭



금년도 제38회 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가 10月15일부터 17일까지 3日間 익산시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本道에서는 民俗保存會가 主管이 되어 옛부터 平北一圓에 걸쳐 널리 傳來되어온 「다리굿」을 가지고 참가키로 되었습니다. 衷心으로 祝賀와 激勵을 보내는 바입니다.

이번 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에 출연하는 다리굿 이외에도 「寧邊城隍大祭」 「용암포풍어제놀이」 定州 「달래강 망패싸움」 慈城·昌城·楚山·碧潼 등지의 「말발굽놀이」 「동줄다리기」 「옥칠내기」 「혜푸살이」 등 그어느 地方民俗에 비한다면 조금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民俗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遺憾스럽게도 祖上들로부터 전래되어온 이와 같은 優秀한 많은 民俗놀이가 있음에도 이를 傳承發展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뿐만아니라 우리 社會에서는 근간 高度의 産業化와 機械化 文明에 밀려 옛것을 소홀히 하고 새것에만 집착하는 風土가 造成되고 있음을 볼때 祖上들이 물려준 자랑스러운 民俗藝術의 맥이 끊어지지나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政府가 해마다 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를 열어 전통문화와 固有民俗을 자랑스럽게 傳承保存 하자는데 온갖 精誠을 다하고 있는것도 바로 이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올해로 第38회를 맞게 되었으니 껍 多幸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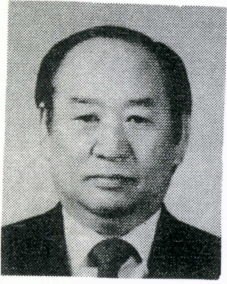
우리는 그동안 여러 種목을 출전시켜 上位入選등 좋은 성적을 올려 왔으며 이번에도 崔滿櫓 民俗保存會長을 위시한 任員 여러분과 46名の 출연진의 熱演으로 좋은 成果를 거둘것을 確信합니다.

앞으로 더 훌륭하고 많은 우리 固有의 民俗을 찾아내 祖上의 얼과 맥을 後世들에게 이어주고 優秀한 傳統民俗文化를 傳承 발전시키는데 힘써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번 大會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분에게 심심한 感謝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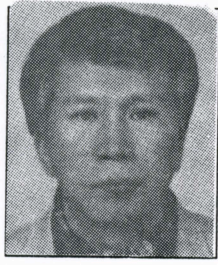
1997年 10月 日

平安北道中央道民會 會長 김 태 신

출 연 자 명 단



단장 최남익



부단장 박인오



고문정대복



고용언



장정임



김동규



정원혜



이병우



황명숙



곽창수



송석란



유막순



이두현



김진난



유오목



박수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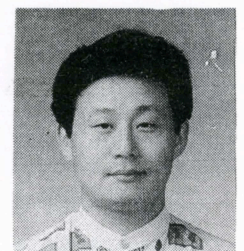
명희



강정희



김교승



박제군



정춘자



이미숙



홍순자



김국환



강정희



지정자



안인숙



이혜숙



지선분



김영택



이경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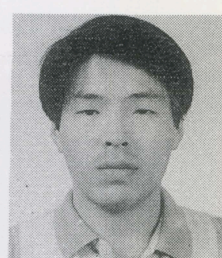
지혜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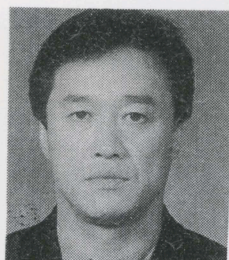
신춘자



박선녀



남종구



최명선



최기식



송영례



윤민수



오정희



하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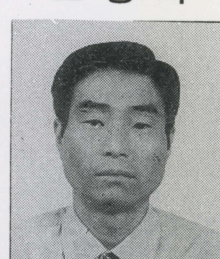
위미화



조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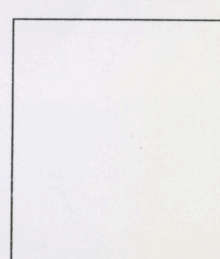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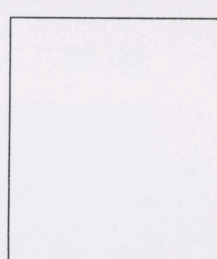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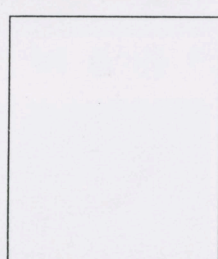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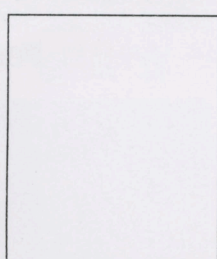
이강호



황덕환



김영숙



平安道 다리굿 (민속놀이)

- 平安北道 -

巫俗宗教의 역사는 분명치 않지만 檀君時代부터 존재한 것으로 추측되며 우리나라에는 三國時代 中國을 통해서 지배계층에 의해 들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무당굿의 종류는 크게 수용포수망굿, 평안도 다리굿, 전라도 셋김굿, 제주도 무혼굿, 함경도 망목굿 등이 이어져 내려왔으며 平安道の 降神巫들에 의해 이어져온 다리굿은 평안도 지역의 대표적인 굿으로서 당울림을 시작으로 14가지가 있으나, 이번에 공연되는 다리굿은 당울림, 만세받이, 세경돌기, 다리발내리기, 넉두리 바라춤 등으로 그 내용은 당울림과 주당을 물리는데서부터 시작하여 亡者를 저승으로 데려가는 사자를 모시고 다릿발에 망자를 올라앉게 한후 극락천도하는 과정까지를 演戲하고 있다.

이 다리굿에서 巫女는 먼저 굿하는 장소, 시간, 목적, 사람등을 아뢴후 각 신격들을 말로써 호명하여 오시기를 청한후 춤을 춘다. 처음에는 느리게 시작했다가 차츰 빨라지고 상하 높은 도물로까지 발전하는데 무당의 공수는 강신무굿에서 가장 중요한 현상으로 평안도 다리굿에서는 중간에 반복적으로 하는 흘림공수와 마지막에 하는 긴공수가 있다.

특히 平安道 다리굿은 망자 천도를 목적으로 하는 굿으로서 산사람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儀禮로서 뜻이 깊다.

※ 고증

○ 고 증 : 정 대 복 (대한승공 경신 연합회)

축

발

전

평 안 북 도 중 앙 도 민 회

회 장 김 태 신

출신군	직위	성명	출신군	직위	성명
신의주	부회장	유명화	창성	부회장	강오륜
용천	"	김려찬	위원	"	박정환
선천	"	김정일	"	"	김재연
정주	"	지치국	강계	"	김흥근
영변	"	김용빈	삭주	감사	정용선
운산	"	김정조	벽동	"	김섭인
운산	"	신태화	후창	"	김상연
구성	"	김용운			

전북지구도민 회장 이인철
군옥지구도민 회장 김덕선